

(IDB)

이계우(이화여대 국제대학원)*

- I. 서론
- II. 한국과 미주개발은행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배경
- III. 미주 미주개발은행에 대한 개관
- IV. 미주개발은행의 조달시장
- V.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조달사업 참여의 비용과 수익
- VI. 결론과 제언

I.

본 연구는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의 차관(loan)으로 집행되는 개발투자사업(development projects)의 조달시장(procurement market)을 분석하고, 만일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한다면 이 조달시장에서 어떠한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하면 어떠한 혜택을 얼마나 받을 것이며, 한국의 가입여부에 관한 정책적 결정은 더 큰 틀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하는 가장 큰 실익중의 하나는 미주개발은행의 차관에 관련된 조달시장에 한국의 기업과 개인이 참여하는 것이라는데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

* Kye-Woo Lee, Ewha Womans University, "An Economic Analysis of the Costs and Benefits of Korea's Accession to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계우 1999; 김준혁 2002).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미주개발은행의 차관에 의한 조달시장의 분석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본 연구는 한국이 중남미 시장에 가입하면 어떠한 이익을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또한 가입을 위하여 어떠한 접근법을 시도해야 하는가를 언급할 것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별도로 더 넓은 틀에서 깊이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둘째 장에서, 한국과 미주개발은행과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간략하게 한다. 셋째 장에서는, 미주개발은행의 기원, 목적, 가맹국, 조직, 운영사업의 특징을 논의한다. 넷째 장에서는, 미주개발은행의 조달시장규모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고, 최근의 시장규모와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 시장을 다른 개발은행의 차관사업과 관련된 조달시장과 비교 분석한다. 특히,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과 관련된 조달시장을 비교 분석한다. 다섯째 장에서는, 각 가맹국의 조달시장 참여 상황을 살펴본다. 특히 한국과 같은 중남미 지역 외 가맹국의 조달시장 참여 상황을 점검하여,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한다면 조달시장의 참여에서 어떠한 실익을 얼마나 향유할 수 있을 가를,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추어서 분석·추정하고, 또 한국의 다른 개발은행에서의 조달시장 참여 경험에 비추어서 비교 분석하고 시험한다. 특히, 실익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포함하여, 경제적인 효과에 관한 전체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여섯번째 장에서는 미주개발은행의 개발차관에 관련된 조달사업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과 비용에 관한 간단한 결론을 도출하고,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하기 위해서 취할 접근법에 관한 간단한 제언을 한다.

II.

한국은 1979 년부터 미주개발은행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가입을 추진해왔으나, 1995 년까지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태였으며 은행 가입 노력도 미온적이었다. 또 중남미와의 관계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도래와 국제적 상호 의존도 증가와 함께, 한국은 중남미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1996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최초로 국민자격으로 과테말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페루를 방문함으로써 대 중남미 정책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따라서 관심의 폭도 정치에서 경제로 확대되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으로 몇 가지 중요한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첫째 한국의 대 중남미 무역과 투자의 구조적 틀이 세워진다. 그 한 예로 “한국-칠레 상호 투자 촉진과 보호”(“Korea-Chile Reciprocal Promotion and Protection of Investments”)조치가 마련되었고, 또 다른 예로써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국-칠레 민간경제협력위원회(Korea-Chile Private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가 설치된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대통령의 방문은 다음 세 가지의 접근방법을 통한 양자 외교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협력과 무역 확대, 그리고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을 내용으로 하는 “한-중미 관계의 제 3 원칙(Three Principles of Korea-Central American Relations)” 2) 경제협력, 자유화, 그리고 민주화에 토대를 둔 “한-남미 파트너십의 제 3 원칙(Three Principles of Korea-South America Partnership)” 3) 중남미 최고의 정책 조율 기구인 리오 그룹(Rio Group)과의 “상설정책 협의”를 통한 새로운 정책 대화채널 마련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중남미 국가들과의 정치 외교 관계가 강화되었으며 지역 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하고자 하는 한국의 노력을 중남미 국가들이 지원하도록 로비 활동을 펼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다.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을 계기로 한 중남미와 한국의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1997년,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가입 시도는

중단되었고,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 받았다. 그 이유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OECD 가입으로 인한 국내적 압력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의 OECD 가입 정책에 대해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외환위기동안 생겨난 사회적 부작용으로 한국은 미주개발은행의 가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없었다. 미주개발은행의 가입은 재정적인 투자를 수반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정부 역시 미주개발은행 가입노력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 관리 조차 한국이 회원으로 가입한다고 해도 가입에 필요한 재정 투자 만큼의 경제적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개발은행 가입 노력을 보류해 두었다”(김준혁, 2002).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몇몇 노력들이 있었다. 1997년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아시아-중남미 국가 장관회의 (Asia-Latin American Ministerial Meeting) 에서 한국은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하려는 의지를 확고히 밝히고, 역내에서의 적극적 조달활동 확대를 부인하였다. 한국은 개발은행의 가입목적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인정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1998년 콜롬비아의 카르타헤나 (Cartagena)에서 열린 개발은행 연례회의에서도 한국의 대표단은 지역, 비지역의 모든 회원국들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갖고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가입문제에 관해서 비공식적으로 논의 하였다. 미국도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이 급선무라는 지난날의 주장을 접고 초기의 가입 반대 입장을 완화 하였다 (김준혁, 2002).

미주개발은행 회원국의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회원국과 미국은 한국의 가입에 소극적이었다.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데, 미주개발은행에는 여유지분이 없었고, 어느 나라도 선뜻 지분을 양보하여

자국의 투표권을 감소시키려 하지 않았다. 또 한국은 건설과 인프라 분야에서 증대하고 있는 국제 경쟁력으로 인하여 이 지역의 경쟁 사업체에게는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지역내 회원국가, 특히 투표권이 많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그리고 멕시코는, 여전히 한국이 잠재적으로는 중남미 시장에서 적대적인 방식으로 조달시장을 확대 점령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미국이 투표권의 31%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지원 여부가 한국의 개발은행 가입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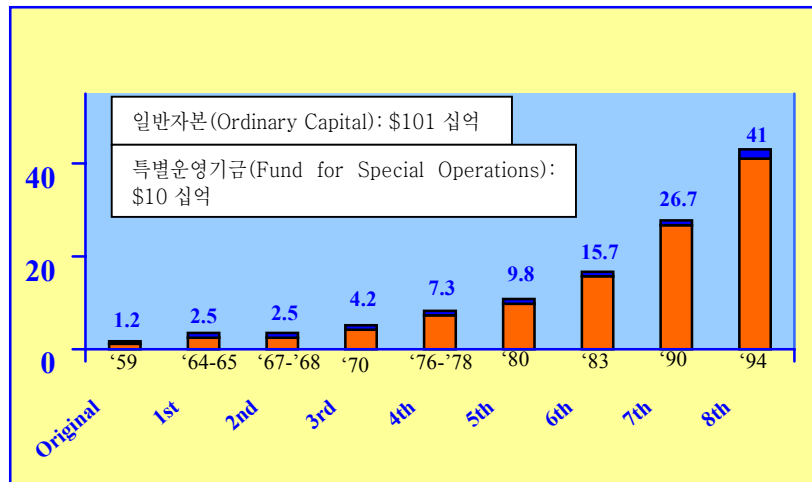
한국은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2000년 미주개발은행에 신탁기금을 설치하였다. 이 신탁기금의 원래 용도는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중미 5개 국가들의 구호 및 복구공사와 콜롬비아의 내전 피해를 복구하는 콜롬비아 평화 회복사업에 관한 것이었으며, 2001년까지 약 59만 달러 상당의 금액을 제공해왔다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2). 이러한 조치는 비회원국인 한국이 개발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IDB 가입기반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신탁기금 제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탁기금 규모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대다수의 신탁기금과 마찬가지로 수혜국 지정을 지양하고 목적을 확대하여 그 목적에 적합하면 대다수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이 중남미국가의 개발을 지원하는 신탁기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인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미주개발은행은 매 4년마다 자본증가를 통해서 재원을 확대해 왔다 (그림 1). 1994년 제 8차 자본증가회의에서 약 410억 달러를 보충했다. 최근에 증자를 결정한 1993년의 개발은행의 미수 대출금 대 자본금의 비율 (gearing ratio)은 0.376:1이었으나 그 후 증자로 인하여 이 비율이 점차 하락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출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이 2000년에는 0.409:1로 높아졌다. 현장에 의하면 이 비율은 1:1을 초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개발은행이 매년 제공하는 차관의 총액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면, 조만간 다시 재원을 보충(일반 증자)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지금부터가 바로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즉 개발은행의 일반 증자라는 기회를 통해서 모든 기존 회원국의 재정부담을 줄여 줄 수 있으면서도, 기존 회원국 상호간의 자본금 지분율에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에 일본이나 미국의 지분을 일부 양보 받아서 미주은행에 가입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특별증자의 기회를 마련한다든지, 타 회원국의 기존 자본금지분율을 양보받아서 가입한다는 것은 관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에는 회원 각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얽혀있어 실현성이 극히 낮다.

<그림 1> 미주개발은행의 증자(Capital Replenishment)

(단위 US\$ 십억)



출처: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2002

III.

본 장에서는 미주개발은행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중남미개발은행의 기원, 구조, 목적 그리고 대출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본 개발은행의 업무와 더불어 회원국이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실익의 범위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기원

미주개발은행은 중남미와 카리브해의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1959년에 설립되었다. 본 개발은행은 개발자금의 확보와 주도적인 분배의 필요성, 그리고 경제통합이라는 현안에 초점을 맞춘 중남미국가들의 주도로 창설되었다 (Bakker, 1996).

195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세계은행이 이 지역에 광범위한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본 개발은행의 설립에 대한 주장은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중남미 국가들은 세계은행 창설당시 회원국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다른 대륙의 식민지들이 독립함에 따라 세계은행의 운영범위가 확대되었고, 초기단계의 개발 상태에 머무르고 있던 이들 신회원국들이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갔다.

1954년 말 브라질의 퀸판딩냐(Quintandinha)에서 개최된 특별경제 회의는 각국의 중앙은행과 중남미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ECLA)의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내에 설치하여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만들어 발표하도록 요청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기존의 개발대출기관의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발기금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당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조지 험프

리(George Humphrey)는 미국은 개발기금을 지원할 만한 공적 자금이 없으며, 중남미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는 기존의 재원으로 충당될 수 있고, 어떤 경우든 대외 개발자금은 민간부문에서 조달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제안을 거절하였다.

뀐판당나 제안은 4년 뒤, 당시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의 중남미 방문을 통하여 개발기금 설립에 대한 인식과 우선순위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닉슨 부통령은 여행을 통하여 중남미지역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이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미국의 외교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게 되었다.

미주개발은행의 청사진에 따르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생산적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사회개발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또 개발은행이 전국적 프로젝트 뿐만아니라 지방도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제안하였다. 나아가서, 개발은행은 중남미의 지역경제통합계획을 지원하는 분명한 권한도 가지도록 했다. 비록 지역경제통합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에 특혜를 주는 것을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1959년 미주개발은행의 창설과 1960년대 중남미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붓물을 이루었던 것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미주개발은행이 창설 된지 몇 달 후, 몬테비데오 조약(Treaty of Montevideo)으로 중남미자유무역연합(Latin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LAFTA)이 생기게 되었고, 마나구아 조약(Treaty of Managua)으로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CACM)이 생겨났다.

미주개발은행 창립 당시 회원국은 19개의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 그리고 미국이었다. 이후 캐나다를 포함한 서반구의 8개 국가들이 가입하였다. 개발은행은 창설 초기부터 다른 대륙의 선진국가들과 관계를 수립할 것을 도모하였으며, 1974년의 마드리드 선언

(Declaration of Madrid)으로 이들 선진국가들도 공식적으로 개발은행에 가입하게 되었다. 1976년에서 1993년 사이에 18개의 비지역 국가가 가입하였다. 현재 개발은행의 회원국은 총 46개국이다. 지역 내 회원국은 28개이고, 비지역 회원국은 18개이다. 하지만, 28개의 지역 내 회원국 중, 미국과 캐나다는 차관을 받지않으므로 차관을 받는 회원국은 26개국이며, 비차관국은 20개국이다.

전부는 아니라도, 대다수의 차입국에게 개발은행은 가장 큰 규모의 공적 자금원이었다. 동시에 이들 차입국들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은행의 대주주이다. 이는 미주개발은행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중남미 정부들은 개발은행을 “자신”들의 개발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계열기관

미주개발은행그룹은 개발은행이외에도 각각 1988년과 1992년에 설립된 중남미투자공사(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IIC)와 다자간투자자금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MIF)을 계열기관으로 보유하고 있다. 투자공사는 개발은행내의 자치기구로서 정부의 보증이 없는 민간부문투자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이는 마치 세계은행그룹의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와 비슷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미주개발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의 우선순위를 보완하고 있다. 공사의 초기 불입자본은 2억 달러였으며 은행으로부터 2억 천만 달러의 차관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외에도 공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공사의 차용능력은 현장에 명시된 엄격한 부채-자기자본 비율(debt to equity)지침에 의한 제한을 받아왔다. 공사는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을 하거나 주식투자 와 보증을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신생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고 기존의

회사의 확장, 근대화, 구조조정, 혹은 민영화에 투자할 수 있다. 공사는 하나의 프로젝트 당 천만 달러 이상의 사업비를 초과 할 수 없다.

다자간투자기금(MIF)은 미국정부의 “전미주 통합을 위한 기업구상”(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EAI)의 일부로 총 13 억 달러의 기부금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부금 중 10 억 달러는 미국과 일본이 동등하게 억 달러씩 부담하였으며 나머지는 기타 10 개국에서 부담하였다. 다자간투자기금은 중남미 지역의 소규모사업 개발을 위한 주요 기술지원 자금원(source)이다. 투자기금은 중남미 지역의 투자 환경을 향상시키고 민간부문에 지원 가능한 자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기능으로 삼고있다.

3. 조직구조

총회(Board of Governors)는 은행 내 최고권위 기관으로서 각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governor)은 재무 장관, 중앙은행 총재 혹은 그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들이며 이들은 매년 회의를 가진다. 총회는 운영상의 권한을 상당부분 상무이사회(Board of Executive Directors)에 위임해왔다. 상무이사회는 은행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이사회는 일상적인 운영상의 문제에 관여해 왔으며 차관의 대출 승인에 앞서 해당 차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왔다. 총재는 이사회의 의장이며, 부총재 일명이 총재를 보좌하고 있다. 총재는 지역 내 차관국 출신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부총재는 미국정부의 추천인물이 임명되는 것이 관례이다. 총이사회 위원회 (the Committee of the Whole of the Board)는 은행의 직원과 회원국 정부와 활발한 협의를 벌이며 각각의 차관 서류에 관해서 집중 토론을 한다.

4. 목표와 최우선 정책

개발은행의 두 가지 중요한 목표는 빈곤퇴치와 사회적 형평성,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개발은행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네 가지 우선정책을 설정하였다.

개방형 국제 경제에서 개발 잠재력을 증대 시키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국가의 경쟁력 육성

- (1) 공공 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통한 국가의 근대화
- (2) 빈민자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 (3) 재화와 용역 시장을 육성하는 국가간의 유대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중남미 지역경제통합을 추진

5. 프로젝트와 운영사업

미주개발은행은 기술지원, 개발계획 및 프로젝트의 준비와 실행 이외에도 중남미 지역에 자본을 유치하는데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해왔다. 미주개발은행은 이 지역 국가들의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다자간 자금지원의 최대 원천이다.

자금 지원방식에는 정책과 부문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위한 차관과 무상원조가 있고, 또 공공 및 민간부문의 투자 프로젝트를 위한 차관 및 무상원조를 포함한다. 차관의 종류에는 투자차관(investment loan), 부문구조조정차관(sector adjustment loan), 긴급차관(emergency loan),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보증(guarantee)과 신디케이트 차관(syndication), IIC 와 MIF 에 의한 주식투자, 그리고 협력차관 등이 있다.

개발은행은 2001 년까지 총 2,730 억 달러에 이르는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 연간 차관액은 1961 년의 2 억 9,400 만 달러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8 년에는 101 억 달러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1999 년에는 95 억 달러, 2001 년에는 79 억 달러에 달했다.

1992년부터는 미주개발은행의 지역 내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차관 금액이 세계은행의 중남미국가에 대한 차관금액을 초월하게 되었다.

개발은행은 개개의 개발 프로젝트 총비용의 50%정도에 달하는 금액을 차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개발은행은 프로젝트 운영에 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미주개발은행은 창설 이후 약 30년간 프로젝트차관(project lending)에 주력해왔다. 미주개발은행 설립의 토대가 된 헌장은 은행이 “주로” 특정한 개별 투자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프로젝트 차관의 이점은 지원금이 의도된 목적에 부합되게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장은 또한 “미주개발은행은 회원국의 개발기관 등에게 “포괄적인 차관”(프로그램차관 또는 부문차관)을 제공하거나 보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은행의 직접적인 감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러개의 작은 크기의 특정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헌장 제 III 조 7 항).

개발은행은 1970 년대에 처음으로 프로그램 차관(program lending)에 개입했다. 1979 년 말 은행은 농업과 농촌개발에 특별한 우선 순위를 둔 부문프로그램 (sector program)에 차관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부문프로그램 차관(sector program loan)은 하나의 큰 개발 프로젝트에 관련된 부수적인 여러 투자활동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이러한 포괄적(umbrella) 차관은 여러 개의 다양한 개별투자 프로젝트와 기관 및 활동을 결합하여 차관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개별투자 프로젝트 차관 보다 광범위하다. 이 같은 광범위한 성격으로 인해서 “포괄적인 차관”은 민간부문에 대한 특정 개별 프로젝트나 투자에 대한 차관만으로는 손길이 채 미치지 못했을 저소득층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중남미 지역의 우선순위가 “경제 발전”에서 “금융적 생존”으로 변화함에 따라, 미주개발은행은 초기에 주를 이루었던 부문개발 차관을 포기하고, 대신 부문구조조정 차관으로 지원방향을 선회하였다. 제 7차 자본보충 (또는 증자) (capital replenishment) 회의에서 구조조정 차관(adjustment loan)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합의가 되어 국제수지적자를 보전할 수 있게 하고, 성장을 저해하고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왜곡된 부문정책을 개혁할 수 있게 했다. 미주개발은행의 조정차관 운영은 오로지 부문산업에만 적용되었으며, 세계은행에서 제공하는 거시경제 전체에 대한 광범위한 성격의 구조조정차관(structural adjustment loan, SAL)은 제외시켰다. 조정차관의 목적은 내적 외적으로 극심한 불균형에 직면한 경제 부문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였다. 신속하게 차관금을 지출함으로써 부문조정차관은 정책 개혁을 유발하고 조정에 수반된 폐해나 단기 비용을 완화 시켰다.

개발은행의 프로젝트 투자활동은 경제와 사회 개발의 전 분야를 포함한다. 과거, 은행의 차관은 농업과 산업의 생산적인 분야, 에너지와 교통 등 인프라 분야, 그리고 환경과 보건, 교육, 도시개발과 같은 사회 분야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는 빈곤 퇴치, 사회적 형평성, 국가 근대화, 경제 통합 그리고 환경을 투자의 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6. 차관과 협력차관의 재원

은행의 중추적인 재원은 일반자금과 특별운영기금(Fund for Special Operations, FSO)이다. 일반자금은 자본시장에서 차입한 기금, 회원국의 납입자본, 유보이윤, 그리고 차관 이자금으로 구성된다.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은 각국이 보유한 주식 즉 인수자본금(subscribed capital)에 비례하여 현재는 4.3%에 달하며, 주식 보유 비율은 자본보충기간동안 협상으로 조정 가능하다. 특별운영기금(FSO)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들의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원조성(concessional) 차관기금이다. FSO의 주된 재원은 각국 정부의 기여금과 약간의 유동성 투자금과 이자 지불금이다. 즉 미주개발은행의 주요 재원은 각국이 보유한 주식으로 조달된 자기 자본, 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차입금, 그리고 기타 신탁 기금이다.

미주개발은행은 일본, 유럽,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 그리고 미국의 자본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해왔다. 은행의 채권은 미국의 주요 신용평가 기관 3 곳에서 가장 신용도가 높은 AAA의 등급을 받았으며, 다른 자본시장에서도 동일한 등급을 부여 받았다.

개발은행은 4년 단위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증자의 필요성과 더불어 차관프로그램에 적용될 가이드라인은 은행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총회와의 협상으로 결정된다.

개발은행은 또한 다자 혹은 양자 그리고 민간 기구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협력차관을 장려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다수의 협력용자에 참여하고 있다. 협력차관은 미주개발은행의 재원을 확대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미주개발은행은 특별한 조건 하에 제공 받은 신탁자금도 운영하였다. 이 은행에는 현재 45개의 신탁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1991년 이후 34개의 신탁기금이 설치되었다. 2001년에만 1,800만 달러의 신탁기금이 기증되었다. 1961년 최초의 신탁기금인 사회진보신탁기금(Social Progress Trust Fund, SPTF)은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의 일환으로 미국이 설치하였다. 기타 공여국(non-borrowing countries)들도 자신들의 신탁기금을 설치하였으며 심지어 회원국이 되기도 전에 설립하는 국가가 있었다. 캐나다와 영국은 원조성의 조건부 자금을 제공하였다.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은 저소득층의 혜택 확대를 위해서 소규모 프로젝트 혹은 소규모 기업용 기금을 마련하였다.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고 포르투갈

정부는 자국의 컨설턴트들을 고용하기 위한 신탁기금도 마련하였다. 일본 역시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일본특별신탁기금 (Japanese Special Fund, JSF)으로 만들어 상황이 필요없는 기술 협력을 지원하였다. 기술협력은 프로젝트 준비, 소규모 프로젝트지원, 그리고 자연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JSF 는 개발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신탁기금 중에서 가장 액수가 많다.

IV.

1. 조달정책

미주개발은행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중의 중요한 부분은, 모든 회원국의 기업이나 개인은 차관국이 미주개발은행의 차관에 관련되어 발주하는 모든 조달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회원국의 기업이나 개인은 조달시장을 개척하거나 시장의 정보를 수집하기위한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사업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는 실익을 향유하게 된다. 국제개발기구로서의 미주개발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회원국 국적의 입찰자들이 공정한 조건 하에 물품과 공사 그리고 용역의 조달과정에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공공 기금에 대한 책임성(accountability)과 공공기금의 비용-효과적인 사용이라는 원칙을 지키는데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효율성, 형평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미주개발은행은 차관에 관련된 대부분의 조달행위가 국제경쟁입찰을 기본적인 조달방식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므로 미주개발은행은 다른 국제개발금융기구와 마찬가지로 조달정책을 수립하여 공시하고, 이 정책이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차관국의 기관에 의하여 지켜지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여러단계에 걸쳐서 감시·감독하고 있다.

2. 조달시장의 규모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하면 조달시장을 통한 경제적이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분석하기 전에 미주개발은행의 차관과 관련된 조달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분석하고 추정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조달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좋은 지표는 연간 차관 승인액과 이미 승인된 차관에서 지출이 허용된 금액이다. 승인된 차관이 곧 조달시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차관의 집행에는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차관 지급액이 매년 조달시장의 규모를 바로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개발은행은 차입국이 조달행위를 끝낸 후, 차입국이 이미 지급한 조달 대금을 보상해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달행위와 차관지급행위와의 사이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2001년에 미주개발은행은 약 80억 달러의 새로운 차관을 승인하였고, 약 65억 달러의 금액을 조달절차를 거친 후 실제로 차관국에 지급하였다.

미주개발은행이 2001년에 승인한 신규 차관액 약 80억 달러는, 실로 엄청난 액수로서 세계은행이 중남미 지역에 제공하는 금액보다 많다. 2001년 세계은행은 총차관액 173억 달러 중, 약 49억 달러의 차관을 중남미 국가에 승인한데 그쳤다. 이는 미주개발은행이 중남미국가에 대한 공적 자본제공자 중 가장 크고 중요한 공급원이며, 전세계 지역개발 은행 중 가장 큰 규모임을 뜻한다(표 1).

<표 1> 국제개발은행의 차관규모

(2001년 기준, US\$)

	세계은행	미주 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아프리카 개발은행	유럽 개발은행
차관승인액	173억(49억) ¹⁾	80억	63억 4천만	30억	37억
차관지급액	173억	65억	39억	10억	11억

출처: 각 은행의 연례 보고서 2002.

1) 중남미 제국에 대한 차관 승인액.

이들 승인된 차관을 수혜국별로 보면 (즉, 국가별 조달시장을 보면) 표 2 와 같다.

그러나 조달시장의 규모를 매년 차관 승인액이나 차관 지급액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적당하다. 개발은행의 차관액은 평균해서 개발 프로젝트 투자액의 50%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50%의 투자금액도, 미주개발은행의 차관액과 같이, 미주개발은행의 조달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조달시장의 규모는 개발은행 차관액의 약 2 배로 증가한다. 따라서, 2001 년을 기준으로 하면, 조달시장의 규모는 160 억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개발은행은 자체의 차관 이외에도 협력차관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협력차관에 대하여도 거의 대부분 개발은행의 조달방식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2001 년에 미주개발은행의 차관과 협력하여 제공된 차관은 6 억 3 천만 달러에 이르며, 미주개발은행 자체 차관액의 8%에 달한다. 이들 협력차관액 중 5 억 9 천만불은 세계은행 등에서 제공하는 차관이고, 이러한 세계은행의 차관액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이 세계은행의 회원국으로서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중복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미주개발은행의 차관과 관련된 협력차관 중 세계은행의 차관을 제외하면, 순수한 협력차관은 4 천만 달러이며 이는 미주개발은행 자체 차관액의 0.5%에 해당되며, 미주개발은행의 차관과 관련된 조달시장의 크기는 이만큼 확대된다. 협력차관도 미주개발은행의 자체차관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총 투자액의 50%정도만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밖에, 미주개발은행은 또 기술협력과 같은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금액은 2001 년에 7 천백만 달러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미주개발은행의 차관과 관련된 조달시장의 크기는, 미주개발은행 자체의 차관액과, 협력차관, 무상원조, 그리고 차관국의 자체 투자액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계산하면,

미주개발은행의 차관에 관련된 조달시장의 규모는 2001 년에 약 161 억 5 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 미주개발은행의 국가별 차관 및 보증액 (2001 년과 1961-2001 년)

국가	총액(US 백만 달러)	
	2001	1961-2001
Argentina	1,655.9	16,757.2
Bahamas	46.2	334.6
Barbados	8.8	377.5
Belize	7.0	92.2
Bolivia	113.2	2,832.8
Brazil	2,055.5	23,651.5
Chile	60.4	4,602.3
Colombia	800.0	8,471.0
Costa Rica	22.4	2,088.6
Dominican Republic	275.0	2,234.7
Ecuador	65.1	3,615.0
El Salvador	277.0	2,792.6
Guatemala	32.2	2,212.0
Guyana	53.3	747.6
Haiti	-	752.8
Honduras	96.4	2,175.5
Jamaica	112.0	1,618.6
Mexico	1,102.0	14,401.5
Nicaragua	180.0	1,841.4
Panama	35.7	1,866.0
Paraguay	22.2	1,699.7
Peru	343.3	5,408.0
Suriname	14.7	72.6
Trinidad and Tobago	-	951.1
Uruguay	303.9	2,576.8
Venezuela	97.5	3,730.3
Regional	74.0	2,660.6
Total	7,853.5	110,564.8

Source: IDB Annual Report 2001

3. 조달시장 점유율

<표 3> 미주개발은행 조달시장의 국가별 점유율

(2001, 1961-2001, US \$ 백만)

차관 차입국	1961-2000						2001						1961-2001					
	국내조달시장		해외조달시장		총액		국내조달시장		해외조달시장		총액		국내조달시장		해외조달시장		총액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아르헨티나	\$3,142.7	10.1	\$1,439	4.0	\$4,581.70	6.8	\$254.5	7.7	\$132.70	4.1	\$387.20	5.9	\$3,397.2	9.9	\$51,571.7	3.9	\$4,988.9	6.7
바하마	22	0.1	91.2	0.2	113.2	0.2	1.7	0.1	0	0.0	1.7	0	23.7	0.1	91.2	0.2	114.9	0.2
바베이도스	46.8	0.2	6.2	0.0	53	0.1	13.1	0.4	0.5	0.0	13.6	0.2	59.9	0.2	6.7	0	66.6	0.1
벨리즈	8.8	0.0	0.6	0.0	9.4	0.0	20.1	0.6	29.5	0.9	49.6	0.8	28.9	0.1	30.1	0.1	59	0.1
볼리비아	759	2.4	70.7	0.2	829.7	1.2	58.6	1.8	22.2	0.7	80.8	1.2	817.6	2.4	92.9	0.2	910.5	1.2
브라질	8980.4	28.9	3032.1	8.3	12012.5	17.8	1246.5	37.7	699.8	20.6	1916.3	29.2	10226.9	29.7	3721.9	9.3	13948.8	18.8
칠레	2159.5	6.9	293.8	0.7	2453.3	3.6	39.3	1.2	87.5	2.7	128.8	1.9	2198.8	6.4	357.3	0.9	2556.1	3.4
콜롬비아	1765.2	5.7	354.8	1.0	2120	3.1	140.6	4.5	34.4	1.1	184	2.8	1914.8	5.6	393.2	1	2304	3.1
코스타리카	369.8	1.2	228.8	0.6	598.6	0.9	11.1	0.3	13.7	0.4	24.8	0.4	380.9	1.1	242.5	0.6	623.4	0.8
도미니카공화국	424.3	1.4	37.2	0.1	461.5	0.7	39.2	1.2	0	0.0	39.2	0.6	463.5	1.3	37.2	0.1	500.7	0.7
에콰도르	1461.6	4.7	234.2	0.6	1695.8	2.5	94.2	2.9	54	1.7	148.2	2.3	1555.8	4.5	288.2	0.7	1844	2.5
엘살바도르	605.6	1.9	54.4	0.1	660.2	1.0	75	2.3	7.7	0.2	82.7	1.3	680.8	2	62.1	0.2	742.9	1
과테말라	436.4	1.4	90	0.2	526.4	0.8	79.5	2.4	10.8	0.3	90.3	1.4	515.9	1.5	100.8	0.3	616.7	0.8
가이아나	71.9	0.2	2.4	0.0	74.3	0.1	16.3	0.5	0	0.0	16.3	0.2	88.2	0.3	2.4	0	90.6	0.1
아이티	241.8	0.8	9.6	0.0	251.4	0.3	9	0.3	0	0.0	9	0.1	250.8	0.7	9.6	0	260.4	0.4
온두라스	369.3	1.2	40.7	0.1	410	0.6	46.2	1.4	0.2	0.0	46.4	0.7	415.5	1.2	40.9	0.1	456.4	0.6
자미카	233.6	0.8	86.6	0.2	320.2	0.5	5	0.2	0.2	0.0	5.2	0.1	238.6	0.7	86.8	0.2	325.4	0.4
멕시코	4930.6	15.9	1059.1	3.0	6009.7	8.9	539.6	16.9	141.1	4.3	700.7	10.7	5510.2	16	1200.2	3	6710.4	9
니카라과	344.1	1.1	23.6	0.1	367.7	0.5	40.9	1.2	1.6	0.0	42.5	0.6	385	1.1	25.2	0.1	410.2	0.6
파나마	452.2	1.5	105.1	0.3	557.3	0.8	55.9	1.7	0.3	0.0	56.2	0.9	508.1	1.5	105.4	0.3	613.5	0.8
파라과이	576.9	1.8	87.9	0.2	664.8	1.0	63	1.9	10.7	0.3	73.7	1.1	639.9	1.9	98.6	0.2	738.5	1
페루	1518.4	4.8	164	0.4	1682.4	2.4	108.3	3.2	3	0.1	109.3	1.7	1624.7	4.7	167	0.4	1791.7	2.4
수리남	0.3	0.0	1	0.0	1.7	0.0	0	0	0	0.0	0	0	0.7	0	1	0	1.7	0
트리니다드투바고	230.3	0.7	92.8	0.3	323.1	0.5	21.5	0.7	16.1	0.6	37.6	0.6	251.8	0.7	108.9	0.3	360.7	0.5
우루과이	861	2.8	193.9	0.5	1054.9	1.6	86.6	2.6	27.9	0.9	114.5	1.7	947.6	2.7	221.8	0.6	1169.4	1.6
베네수엘라	1083.1	3.5	744.4	2.0	1827.5	2.7	211.5	6.3	109.9	3.3	321.4	4.9	1294.6	3.7	854.3	2.2	2148.9	2.9
총계	\$31,116	100	\$8,540.1	28.1	\$39,656.3	58.6	\$3,304.2	100	\$1,373.8	42.2	\$4,678.0	71.3	\$34,420.4	100	\$59,913.9	24.9	\$44,334.3	59.7
비차입국																		
오스트리아			111.3	0.3	111.3	0.2			7.8	0.2	7.8	0.1			119.1	0.3	119.1	0.2
벨기에			245.8	0.7	245.8	0.4			0.0	0.0	0.0	0.0			245.8	0.6	245.8	0.3
캐나다			661.3	1.8	661.3	1.0			42.5	1.3	42.5	0.6			703.8	1.8	703.8	0.9
크로에티아			4.1	0.0	4.1	0.0			0.3	0.0	0.3	0.0			4.4	0.0	4.4	0.0
덴마크			144.2	0.4	144.2	0.2			7.4	0.2	7.4	0.1			151.6	0.4	151.6	0.2
핀란드			77.9	0.2	77.9	0.1			34.1	1.0	34.1	0.5			112.0	0.3	112.0	0.2
프랑스			1,804.7	5.0	1,804.7	2.7			106.1	3.3	106.1	1.7			1,910.8	4.8	1,910.8	2.6
독일			2,468.8	6.8	2,468.8	3.6			148.0	4.5	148.0	2.3			2,616.8	6.6	2,616.8	3.5
이스라엘			135.5	0.4	135.5	0.2			17.3	0.5	17.3	0.3			152.8	0.4	152.8	0.2
이탈리아			2,618.1	7.2	2,618.1	3.9			137.1	4.2	137.1	2.1			2,755.2	6.9	2,755.2	3.7
일본			1,967.8	5.4	1,967.8	2.9			133.1	4.2	133.1	2.0			2,100.9	5.3	2,100.9	2.8
네덜란드			573.6	1.6	573.6	0.8			22.4	0.7	22.4	0.3			596.0	1.5	596.0	0.8
노르웨이			47.7	0.1	47.7	0.1			2.3	0.1	2.3	0.0			50.0	0.1	50.0	0.1
포르투갈			49.4	0.1	49.4	0.1			7.9	0.2	7.9	0.1			57.3	0.1	57.3	0.1
슬로베니아			25.1	0.1	25.1	0.0			15.4	0.5	15.4	0.2			40.5	0.1	40.5	0.1
스페인			1,195.6	3.3	1,195.6	1.8			131.0	4.0	131.0	2.0			1,326.6	3.3	1,326.6	1.8
스웨덴			529.9	1.4	529.9	0.8			49.4	1.5	49.4	0.8			579.3	1.5	579.3	0.8
스위스			707.9	2.0	707.9	1.0			49.2	1.5	49.2	0.8			757.1	1.9	757.1	1.0
영국			912.2	2.5	912.2	1.3			61.1	1.9	61.1	0.9			973.3	2.4	973.3	1.3
미국			13,731.5	37.6	13,731.5	20.3			909.3	27.9	909.3	13.9			14,640.8	36.8	14,640.8	19.7
유고슬라비아			14.3	0.0	14.3	0.0			0.0	0.0	0.0	0.0			14.3	0.0	14.3	0.0
총계			\$28,026.7	76.9	\$28,026.7	41.4			\$1,881.7	57.8	\$1,881.7	28.7			\$29,908.4	75.1	\$29,908.4	40.3
비중합계	\$31,116.2	100	\$36,568.8	100	\$67,683.0	100	\$3,304.2	100	\$3,255.5	100	\$6,559.7	100	\$34,420.4	100	\$59,822.3	100	\$74,242.7	100

출처: IDB Annual report 2001. 1) 개별투자프로젝트차관과 부문조정차관을 포함.

미주개발은행의 차관에 의한 조달시장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시장의 점유율 (표 3)을 보기 위해서는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국내시장은 차입국의 기업들끼리 국내에서 경쟁하는 시장이며 (예. 국내경쟁입찰), 해외시장은 차입국의 기업과 타 회원국의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을 말한다 (예. 국제경쟁입찰). 이 구별은 엄격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라 할지라도 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관심을 갖지 않거나, 계약의 규모가 크더라도 외국기업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내시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내시장도 외국기업의 경쟁에 열려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 누계를 보면, 해외시장은 전체조달시장의 54%에 달하지만 (398 억 달러), 최근 (2001)에 들어서 역내 신흥경제의 경쟁력 강화로 인하여, 2001년에는 50%로 줄어들었다 (32 억 달러).

역내의 차입국가들의 해외시장점유율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지만, 최근에 들어서 브라질, 칠레와 베네주엘라의 해외 시장점유율이 조금 상승하고, 아르헨티나의 점유율이 조금 하락 하는 추세에 있다. 2001 년에 브라질은 역내의 해외 조달시장에서 6 억 7 천만 달러의 성과를 기록하여 20.6% 라는 최대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멕시코 (4.3%), 아르헨티나 (4.1%), 베네주엘라 (3.3%), 칠레 (2.7%), 에콰도르 (1.7%), 콜롬비아 (1.1%)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역내의 비차입국 (미국과 캐나다)과 지역외 국가들의 점유율을 보면 (표 4), 이들 비차입국가들이 역사적으로는 평균 75%의 해외조달시장 점유율을 유지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중남미의 신흥개발국의 경쟁력이 높아져 2001 년의 시장점유율이 58%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점유율은 총자본에서 이들 역내 비차입국이 차지하는 지분(34%)과 비지역국가들의 지분(16%)을 고려하면, 아직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별로 보면, 2001 년에

미국은 약 9 억 달러를 수주하여, 27.9% 라는 최대의 해외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 (4.5%), 일본과 이태리 (각각 4.2%), 스페인 (4.3%), 프랑스 (3.3%)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각 국가의 해외조달시장의 점유율은 그 국가의 자본지분율과는 어떤 관계도 없고, 오직 그 국가의 해외 경쟁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해외시장점유율은 그 자본지분율(31%) 보다 낮고, 일본의 자본지분율은 높지만 (5%), 그 시장점유율은 자본지분율이 낮은 독일(1.9%)보다 낮다 (4.2% 대 4.5%). 또한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은 그 자본지분율 (각각 1.9%)보다 훨씬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 3.3%, 4.2%, 4.3%). 포르투갈과 슬로베니아는 자본지분율은 근소하지만 (각각 0.05% 와 0.03%), 해외시장점유율(각각 0.2% 와 0.5%)은 자본지분율의 10 배 가까이 된다. 둘째는, 비지역국가는 자본지분율과 납입자본의 대소에 관계없이 모두 높은 수익율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벨기에, 크로아티아, 덴마크, 노르웨이 4 개국을 제외한 모든 비지역국가의 수익은, 납입자본의 수배에 달한다. 특히 슬로베니아는 납입자본의 12 배에 해당하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

<표 4> 미주개발은행의 비지역국가의 해외조달시장 점유율 (2001)

비지역회원국	자본비율	납입자본	조달공급*	조달공급/ 납입자본	조달공급 비율 (%)	
	(%)	\$(백만)	\$(백만)	(%)	(2001)	(1961-01)
오스트리아	0.159	6.9	7.8	113.0	0.2	0.3
벨기에	0.328	14.2	0.0	0.0	0.0	0.6
크로아티아	0.048	2.1	0.3	14.4	0.0	0.0
덴마크	0.169	7.3	7.4	100.7	0.2	0.4
핀란드	0.159	6.9	34.1	494.2	1.0	0.3
프랑스	1.895	82.3	106.1	129.0	3.3	4.8
독일	1.895	82.3	148.0	179.9	4.5	6.6
이스라엘	0.157	6.8	17.3	254.3	0.5	0.4
이탈리아	1.895	82.3	137.1	166.6	4.2	6.9

일본	5.002	217.1	133.1	61.3	4.2	5.3
네덜란드	0.337	14.6	22.4	153.1	0.7	1.5
노르웨이	0.169	7.3	2.3	31.3	0.1	0.1
포르투갈	0.053	2.3	7.9	341.1	0.2	0.1
슬로베니아	0.029	1.3	15.4	1,215.5	0.5	0.1
스페인	1.895	82.3	131.0	159.2	4.3	3.3
스웨덴	0.326	14.1	49.4	349.4	1.5	1.5
스위스	0.470	20.4	49.2	241.0	1.5	1.9
영국	0.962	41.8	61.1	146.2	1.9	2.4
총계	15.948	689.5	1881.7		28.7	40.3

출처: IDB Annual Report 2001 * 투자 차관과 부문조정차관에서 지급된 것 포함.

V.

1. 타 국제기구의 조달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

미주개발은행의 차관으로 이루어지는 조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은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관이나 다른 지역개발은행에서 제공하는 차관과 관련된 조달시장에서, 이미 한국의 기업이 획득한 외화의 양과 비중을 비교해 볼 때 명백해 진다.

예를 들어 아시아개발은행의 조달사업의 경우, 한국은 참여 이후 아직까지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지는 않으나, 장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1 년도 아시아개발은행 연례 보고서 (Asian Development Bank Annual Report) 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이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에 관련된 조달사업에 참여하여, 2001 년 한 해 동안만 2,400 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했다. 전체 조달사업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1.4%이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인수자본비율이나 납입자본의 지분 (4.2%)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로, 정부가 앞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아시아개발은행의 차관에 관련된

조달사업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만약 한국의 기업이 한국의 인수자본비율 만큼만 조달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한다면, 외화획득액은 7,400 만 달러로 증가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한국은 세계은행의 차관에 연계된 조달사업에서도 큰 경제적 이익을 산출했다.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조달사업 참여의 실익은 그 비용과 비교해 볼 때 더욱 명백해 진다. 조달사업 참여의 비용은 한국정부가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위하여 인수한 자본과 그에 따른 납입자본이다. IBRD 와 IDA 총 인수자본 약 3 천억 달러 (US\$1,895 억 + US\$1,087 억) 중 한국정부가 인수한 자본은 0.73%에 해당하는 약 22 억 달러 (US\$ 19 억 + US\$ 3 억)이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실제로 납입한 자본은 한국정부가 인수한 자본의 19% 에 해당하는 약 4 억 달러 (US\$ 1 억 1,450 만 달러 + US\$ 3 억 170 만 달러) 이다.

이 비용을 2001 년 한 해에 한국기업이 세계은행의 차관으로 집행되는 해외조달사업에 성공적으로 참여하여 획득한 외화 (2 억 1,400 만 달러)와 비교하면 (표 5) , 한국의 수익은 비용의 52% 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세계은행에 가입하는데 든 비용을 2년 만에 전액 회수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2001 년 한국의 기업이 세계은행의 차관에 관련된 조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해외에서 벌어들인 2 억 1,400 만 달러는 한국의 2000 년 수출총액의 1.3% 에 해당하므로 수출을 그만큼 증가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세계은행의 초창기부터 2001 년까지 한국의 기업이 세계은행의 투자 프로젝트 차관에만 관련된 해외조달 사업에 참여하여 획득한 외화의 누계는, 29 억 3,100 만 달러에 이른다. 이 금액은 한국이 세계은행에 가입하기 위하여 납입한 자본금의 7 배 이상에 달하는 수익이다.

시장점유율로 말하면, 한국이 세계은행의 총납입자본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35%에 불과하지만, 세계은행 초창기부터 지금까지의 해외조달사업에서의 성공적인 참여비율은 1.73%여서, 비용의 5 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고 할 수 있다. 최근 2001 년 한 해만 보면 성공적인 참여비율은 2.65%나 된다. 앞으로는 한국기업의 경쟁력 증가에 따라, 이 비율이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한국의 세계은행 가입의 경제적 실익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크다고 하겠다.

<표 5> 세계은행 조달사업의 국가별 점유율

국가	납입자본금		조달사업누계 ²		차관조달사업(2001)			
	지분 %	납입자본금 \$(백만)	조달사업누계 ² \$(백만)	조달사업/ 납입자본(%)	차관사업/ 납입자본(%)	\$(백만)	차관사업/ 납입자본(%)	차관사업/ 납입자본(%)
미국	23.16	27,840.2	27,928	16.40	100.3	1,562.1	19.35	5.61
일본	20.82	25,022.1	19,913	11.70	79.6	471.3	5.84	1.88
독일	10.69	12,851.9	17,709	10.40	137.8	687.6	8.52	5.35
영국	7.12	8,552.9	15,176	8.91	177.4	398.1	4.93	4.65
프랑스	6.65	7,988.9	13,793	8.10	172.7	485.2	6.01	6.07
이탈리아	3.95	4,744.9	9,825	5.77	207.1	538.2	6.67	11.34
스위스	1.33	1,595.8	5,950	3.49	372.9	109.4	1.36	6.86
캐나다	4.24	5,102.4	3,764	2.21	73.8	120.4	1.49	2.36
네덜란드	3.57	4,291.2	3,678	2.16	85.7	128.0	1.59	2.98
중국	0.31	375.8	3,323	1.95	884.2	284.1	3.52	75.6
한국	0.35	416.2	2,931	1.72	704.2	213.6	2.65	51.32
벨기에	1.64	1,974.8	2,718	1.60	137.6	133.0	1.65	6.73
브라질	2.40	547.0	2,335	1.37	426.9	182.0	2.25	33.27
스웨덴	0.81	2,880.8	2,280	1.34	79.1	80.4	1.00	2.79
오스트리아	0.83	976.8	2,230	1.31	228.3	88.5	1.10	9.06
오스트레일리아	1.66	1,991.8	2,022	1.19	101.5	74.2	0.92	3.73
싱가포르	0.00	3.9	1,987	1.17	50,948.7	96.5	1.20	2,474.36
스페인	0.71	855.9	1,904	1.12	222.5	189.7	2.35	22.16
남아프리카	0.16	192.0	1,167	0.69	607.8	163.8	2.03	85.31
인도	0.32	389.4	1,538	0.90	395.0	77.5	0.96	19.90
덴마크	1.29	1,555.1	1,216	0.71	78.2	52.1	0.65	3.35
아르헨티나	0.17	202.5	1,065	0.63	525.9	230.9	2.86	114.02
아랍 에미리트	0.02	22.6	953	0.56	4,216.8	3.0	0.04	13.27

사우디아라비아	2.07	2,493.2	858	0.50	34.4	35.7	0.44	1.43
러시아 연합	0.42	507.2	872	0.51	171.9	134.1	1.66	26.44
기타	5.68	6,825.1	23,120	13.58	338.7	1,531.8	18.98	22.44
총계	100.00	120,200.0	170,255	100.00	141.6	8,071.2	100.00	6.71

(2001, 1945-2001)¹

출처 World Bank Annual Report 2001

1) IBRD 와 IDA 와 함께

2) 개별투자프로젝트의 해외조달시장만 포함함

2. 미주개발은행 가입비용과 효과

만일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한다면, 그 가입비용과 그 효과 즉 조달사업의 수익은 어떻게 비교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첫째, 미주개발은행의 일반자본금만 납입하는 경우를 고려할 때, 한국이 벤치마크 할 현재의 회원국이 차관 조달시장에서 얼마나 수익율을 올려왔고 또 올릴 것인가를 고찰한다. 둘째, 일반자본금 이외에 특별운영기금에도 기여금을 납입할 때, 벤치마크 할 회원국의 수익율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셋째, 한국이 세계은행에서 가지는 조달시장 점유율과 같은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미주개발은행의 차관으로 이루어지는 조달시장에서 확보한다면 수익율이 얼마나 될지를 분석한다. 넷째는, 셋째 시뮬레이션과 같되, 조달시장의 규모를 차관액에 한정하지 않고, 개발 프로젝트 전체에 대한 투자액과 차관에 관련된 협력차관과 무상원조를 포함한 금액을 시장규모로 가정하고 한국의 수익율을 분석한다. 다섯째, 네번째 시뮬레이션과 같되, 해외조달시장의 규모가, 사실상 차입국내에서의 공개경쟁에서 차입국 자체의 수주로 인하여, 전체 조달시장의 50%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지역외 국가는 사실상 2001 년에 미주개발은행의 전체조달시장의 50% 시장에서만 참여하여서 전체조달시장에서 29%의 점유율을 가졌다. 네번째 가정은 이론상으로는 미주개발은행의 조달정책과 일관성이 없는 가정이다. 미주개발은행의 조달정

책에 따르면 국내의 공개경쟁 입찰이라 하더라도 외국기업의 참여를 금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외국기업도 자유롭게 국내경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역외 국가들은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참여비용에 비해서 계약규모가 너무 작다든지 또는 차입국의 국내경쟁력이 강하여 상대적 우위성이 없다고 판정하여, 아예 경쟁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 필요한 가정은 모든 회원국간의 화폐가치와 비현실적인 환율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모든 회원국이 미주개발은행에 납입하는 자본금은, IMF 에서의 분담금 (quota) 납부와 달라서, 자국화폐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미화 (US dollars) 로 통일하여 계산하고 또 조달시장에서 얻는 수익도 같은 미화로 계산하여 환율의 비현실적인 평가에서 오는 불합리한 점을 없애려 한다. 또 비용과 효과가 모두 국제가격이라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장점이 있다 (ADB,1997).

3. 시뮬레이션 I

(1) 비용

미주개발은행의 조달사업에 참여할 경우 한국이 부담할 비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네 개의 다른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은행 내에서 비지역 회원국들의 현 경제규모와 일인당 소득수준을 토대로 할 때 한국의 비용 (인수자본 지분율과 납입자본 지분율)은 총 자본금 지분율이 가장 높은 국가와 가장 낮은 국가의 중간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높은 지분율의 국가들 중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은 각각 은행의 총 인수 자본금 1 천 10 억 달러 중 1.9%에 해당하는 19억 달러의 자본을 인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나라들이 실제로 납입한 자본금은 인수자본의 4.3%에 해당하는 8,220 만 달러이다. 자본지분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 중에서 포르투갈은

총납입자본의 0.05%인 230 만 달러, 그리고 슬로베니아는 0.03%인 120 만 달러를 납입했다. 따라서 한국의 조달사업 참여 비용은 높다면 프랑스와 독일 수준에 이를 수 있거나 아니면 슬로베니아와 포르투갈의 중간 수준이 될 수 있다. 한국이 프랑스와 독일 수준의 자본금 지분을 획득하기로 결정한다면, 앞으로 초기투자비용(납입자본금)은 총 8,220 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반면 한국이 슬로베니아 수준의 자본금 비율을 보유하기로 결정한다면, 비용은 120 만 달러, 혹은 포르투갈의 자본금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230 만 달러가 될 수 있다. 한국이 자본금 지분비율 수준을 높게 혹은 낮게 선택하든, 이는 한국이 조달사업으로 얻는 이익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조달사업 참여는 납입자본금액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조달사업은 공평성,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국가는 동일한 기회를 갖게 된다.

(2) 수익

표 6은 한국이 미주개발은행 조달사업에 참여할 경우의 연간 이익, 연간 비용, 연간 순 이익을 나타낸 시뮬레이션이다. 본 시뮬레이션은 미주개발은행의 차관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회원 국가들이 조달사업에 참여하여 얻는 수익이 연 평균 3% 증가한다는 가정 하에,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와 포르투갈이 앞으로 10 년의 기간 동안 개발은행의 조달사업에 참여한다고 가정한다. 연 3% 증가율은 과거 미주개발은행의 차관액 증가추세와 비추어 볼 때 보수적인 가정이다.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는 장래의 순수익에서 연 10%의 할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10년을 토대로 계산한 이유는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한 초년 후 앞으로 10년간 자본증가가 없을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장기적인 이익은 상당하다. 위의 4개국 모두의 순이익은 매년 초기의 투자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 특히 독일의 순현재가치는, 초기 투자비용인 8,220 만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7 억 8,400 만 달러로 가장 높았다. 슬로베니아는, 초기의 투자비용 120 만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8,790 만 달러의 순현재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포르투갈도 초기의 투자비용 230 만 달러에 비하여 훨씬 많은 4,350 만 달러의 순현재가치를 창출한다. 수익율도 독일은 연 183%, 프랑스는 연 132%, 슬로베니아는 연 1,286%, 그리고 포르투갈은 연 346%를 거두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이들 국가 만큼의 납입자본을 투자하고, 이들 국가 만큼 조달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참여 (수주)한다면, 최저로 연평균 132%의 높은 수익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결론이다.

<표 6> 미주개발은행의 조달사업 시뮬레이션 I

슬로베니아(US\$백만)					포르투갈(US\$백만)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1	1.2	0.0	-1.2	-1.1	1	23	0.0	-23	-21
2		15.4	15.4	12.7	2		7.9	7.9	6.5
3		15.8	15.8	11.9	3		8.1	8.1	6.1
4		16.3	16.3	11.1	4		8.3	8.3	5.7
5		16.8	16.8	10.4	5		8.6	8.6	5.3
6		17.3	17.3	9.8	6		8.8	8.8	5.0
7		17.8	17.8	9.1	7		9.1	9.1	4.7
8		18.3	18.3	8.5	8		9.4	9.4	4.4
9		18.7	18.7	7.9	9		9.7	9.7	4.1
10		19.4	19.4	7.5	10		10.0	10.0	3.9
현재가치	156	154.6	87.9		현재가치	79.9	77.6	43.5	
수익율			1286.0%		수익율			346.0%	

독일 (US\$백만)					프랑스 (US\$백만)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1	82.2	0.0	-82.2	-74.7	1	82.2	0.0	-82.2	-74.7
2			148.0	148.0	2			106.1	87.7
3			152.4	152.4	3			109.3	82.1
4			157.0	157.0	4			112.6	76.9
5			161.7	161.7	5			115.9	72.0
6			166.6	166.6	6			119.4	67.4
7			171.6	171.6	7			123.0	63.1
8			176.6	176.7	8			126.7	59.1
9			182.0	182.0	9			130.5	55.3
10			187.5	187.5	10			134.4	51.8
현재가치	82.2	1504	1421.3	784	현재가치	82.2	1078	995.7	540.7
수익률				183.0%	수익률				132.0%

4. 시뮬레이션 II

(1) 비용

시뮬레이션 II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 특히 비지역 국가들이, 일반자본의 납입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출연하는 특별운영기금(Fund for Special Operations, FSO)에 기부하는 금액까지 비용으로 고려하였다. 2001년 현재 전 회원국의 일반자본 납입금이 약 43억 달러인데 비하여, 특별운영기금에 대한 기여금은 95억 달러에 달한다. 본 시뮬레이션에서는 모든 국가의 초기 투자비용이, 시뮬레이션 I에 비하여, 특별운영기금에 기부한 액수만큼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슬로베니아는 320만 달러의 특별운영기금을 기부하였으므로 슬로베니아의 총 초기비용은 440만 달러로 늘어났다(표 7).

한국이 특별운영기금에 기부하는 금액에 따라서 초기비용은 독일의 3억 900만 달러, 프랑스의 2억 8,740만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거나, 혹은 슬로베니아의 440만 달러와 포르투갈의 930만 달러 수준이 될 수 있다. 조달사업 참여는 특별운영기금 출연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

나 미주개발은행의 회원국이 되는 비용 이외에도, 각 국가들은 개발은행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특별운영기금에 자금을 출연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표 7. 미주개발은행 회원국의 초기투자비용

(백만 달러)

국가	초기비용		총초기비용 (일반자본+특별운영기금)
	일반자본지분	특별운영기금 (FSO)기여금	
슬로베니아	\$ 1.2	\$ 3.2	\$ 4.4
포르투갈	\$ 2.3	\$ 7.0	\$ 9.3
독일	\$ 82.2	\$ 226.8	\$ 309.0
프랑스	\$ 82.2	\$ 205.1	\$ 287.4

(2) 수익

이들 국가의 조달시장에서의 수익은 시뮬레이션 I 과 같이, 현재의 조달시장 수익이 계속 연 3%씩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초기비용이 일반자본 납입금과 특별운영기금에 대한 기여금을 합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국가들이 여전히 조달사업에서 순이익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조달사업에 참여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순이익(5 억 7,700 만 달러)을 거둬들이고 있으며, 순수익이 가장 낮은 포르투갈도 3,700 만 달러를 거두었다. 그러나 수익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져서, 독일이 연평균 49%에 머물렀으며, 프랑스 37%, 포르투갈 87%, 슬로베니아 353%이다 (표 8).

그러므로 한국이 이들 국가와 같은 수준으로 일반자본 납입금과 특별기금에 투자하더라도, 현재 이들 국가와 같은 수준의 조달시장참여 성공율을 유지한다면, 연평균수익율은 최저 37%에 달할 것이다.

<표 8> 미주개발은행 조달사업 시물레이션 II

슬로베니아 (US\$백만)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1	4.4	0.0	-4.4	-4.0
2		15.4	15.4	12.7
3		15.8	15.8	11.9
4		16.3	16.3	11.1
5		16.8	16.8	10.4
6		17.3	17.3	9.8
7		17.8	17.8	9.1
8		18.3	18.3	8.5
9		18.7	18.7	7.9
10		19.4	19.4	7.5
현재가치	4.4	155.8	151.4	85.0
수익률				353%

포르투갈 (US\$백만)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1	9.3	0.0	-9.3	-8.5
2		7.9	7.9	6.5
3		8.1	8.1	6.1
4		8.3	8.3	5.7
5		8.6	8.6	5.3
6		8.8	8.8	5.0
7		9.1	9.1	4.7
8		9.4	9.4	4.4
9		9.7	9.7	4.1
10		10.0	10.0	3.9
현재가치	9.3	79.9	70.6	37.2
수익률				87%

독일 (US\$백만)					프랑스 (US\$백만)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1	309.0	0	-309	-280.9	1	287.4	0.0	-287.4	-261.3
2		148.0	148.0	122.3	2		106.1	106.1	87.7
3		152.4	152.4	114.5	3		109.3	109.3	82.1
4		157.0	157.0	107.2	4		112.6	112.6	76.9
5		161.7	161.7	100.4	5		115.9	115.9	72.0
6		166.6	166.6	94.0	6		119.4	119.4	67.4
7		171.6	171.6	88.1	7		123.0	123.0	63.1
8		176.7	176.7	82.4	8		126.7	126.7	59.1
9		182.0	182.0	77.2	9		130.5	130.5	55.3
10		187.5	187.5	72.3	10		134.4	134.4	51.8
현재가치	309.0	1503.5	1194.5	577.5	현재가치	287.4	1077.9	790.5	354
수익률				49%	수익률				37%

5. 시뮬레이션 III

(1) 비용

위의 시뮬레이션은 예로 든 각국이 과거에 올린 수익율을 기초로하여, 미래의 수익을 추정하고, 한국이 이들 국가와 같은 수익율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했을 경우의 수익율을 간접적으로 추정해보는 것이었다. 즉 한국이 이들 국가와 꼭 같은 수준의 비용을 투자하여 같은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조금 비현실적이다. 한국이 높은 자본 지분율을 가진 프랑스나 독일과 똑같은 경쟁력을 가져서 같은 수익율을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했을 경우에 얼마의 수익율을 올릴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추정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국의 수익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비용면에서, 한국이 비교적 높은 자본지분율을 가진 나라 (프랑스와 독일)와 가장 낮은 지분율을 가진 나라 (슬로베니아와 포르투갈)와 같은 지분을 가졌다고 각각 가정한다. 이 지분은 시뮬레이션 II 에서와 같이, 일반자본 납입금과 특별운영기금 기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2) 수익

수익면에서 볼 때, 첫째, 한국은 세계은행에서 2001 년에 2.65%의 시장점유율을 보였고, 이 율은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더욱 증가될 것이다. 그러나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한국의 조달시장점유율은 앞으로 10 년간 변하지 않고, 2.65%로 고정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점유율을 중남미시장에도 꼭 같이 적용한다.

둘째, 한국의 조달 시장점유율을 시장의 규모에 적용할때, 조달시장의 규모를 미주개발은행의 차관액과 같은 금액으로 보고, 계산한다. 2001 년의 미주개발은행의 차관액이 약 78 억 5,400 만 달러였으므로, 이 시장이 매년 3% 씩 실질성장을 해 간다고 가정한다.

위와 같은 가정에서 보면, 한국은 초년에 중남미 조달시장에서 2억 8 백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게 된다. 이 금액은 한국의 대 중남미 총수출액의 2.27%에 해당하며, 가장 큰 중남미 수출대상국 (멕시코)에 대한 수출액의 약 1/11 에 해당하며, 대 칠레 수출액의 1/3, 아르헨티나와 베네주엘라에 대한 수출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며, 페루 혹은 콜롬비아에 대한 수출액을 초과한다 (표 9).

표 9. 한국의 무역 분포

(US\$ 백만, %)

	1990				200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세계 총무역량	65,02	100.0%	69,858	100.0%	171,826	100%	160,479	100%
선진공업국	45,41	69.8%	49,748	71.2%	88,115	51.3%	87,076	54.3%
미국	19,44	29.9%	16,946	24.3%	37,806	22.0%	29,286	18.2%
일본	12,63	19.4%	18,574	26.6%	20,466	11.9%	31,828	19.8%
기타	13,32	20.5%	14,228	20.4%	29,843	17.4%	25,962	16.2%
개발도상국	16,84	25.9%	15,399	22.0%	83,422	48.5%	73,371	45.7%
아프리카	963	1.5%	473	0.7%	2,622	1.5%	3,054	1.9%
아시아	11,42	17.6%	7,797	11.2%	60,474	35.2%	38,505	24.0%
(중국 본토)	(486)	(1.54%)	(191)	(4.93%)	(18,455)	(10.7%)	(12,799)	(8.0%)
유럽	1,940	0.7%	5,184	0.3%	4,005	2.3%	3,042	1.9%
중동	1,003	3.0%	3,441	7.4%	7,167	4.2%	25,553	15.9%
서반구(중남미)*	2,019	3.1%	1,723	2.5%	9,153	5.3%	3,218	2.0%
아르헨티나	75	0.1%	86	0.1%	448	0.3%	191	0.1%
브라질	106	0.2%	707	1.0%	1,724	1.0%	935	0.6%
칠레	144	0.2%	331	0.5%	593	0.3%	902	0.6%
콜롬비아	58	0.1%	13	0.0%	201	0.1%	53	0.0%

멕시코	560	0.9%	264	0.4%	2,391	1.4%	378	0.2%
페루	10	0.0%	94	0.1%	213	0.1%	143	0.1%
베네주엘라	51	0.1%	20	0.0%	380	0.2%	26	0.0%
기타	1,015	1.6%	208	0.3%	3,203	1.9%	590	0.4%
특수 분야	2,774	4.3%	4,711	6.7%	289	0.2%	18	0.0%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2001.
 * 중남미: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매년의 수익의 현재가치의 누계에서 초기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의 누계의 현재가치는 한국의 초기비용을 어느 나라에 벤치마킹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순수익의 누계의 현재가치는 최고 12 억 3 백만 달러이며, 최저 9 억 2,600 만 달러에 이른다. 수익율도 연평균 최고 4,733%에서 최저 75%에 달한다 (표 10).

<표 10> 미주개발은행 조달사업 시뮬레이션 III

슬로베니아(US\$백만)					포르투갈(US\$백만)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1	4.4	0.0	-4.4	-4.0	1	9.3	0	-9.3	-8.5
2		208.1	208.1	172.0	2		208.1	208.1	172.0
3		214.4	214.4	161.1	3		214.4	214.4	161.1
4		220.8	220.8	150.8	4		220.8	220.8	150.8
5		227.4	227.4	141.2	5		227.4	227.4	141.2
6		234.3	234.3	132.2	6		234.3	234.3	132.2
7		241.3	241.3	123.8	7		241.3	241.3	123.8
8		248.5	248.5	115.9	8		248.5	248.5	115.9
9		256.0	256.0	108.6	9		256.0	256.0	108.6
10		263.7	263.7	101.7	10		263.7	263.7	101.7
현재가치					현재가치				
4.4 2114.4 2110.0 1203.3					9.3 2114.4 2105.1 1198.8				
수익율					수익율				
4733%					2241%				

독일(US\$ 백만)					프랑스(US\$ 백만)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1	309.0	0.0	-309	-280.9	1	287.4	0	-287.4	-261.3
2		208.1	208.1	172.0	2		208.1	208.1	172.0
3		214.4	214.4	161.1	3		214.4	214.4	161.1
4		220.8	220.8	150.8	4		220.8	220.8	150.8
5		227.4	227.4	141.2	5		227.4	227.4	141.2
6		234.3	234.3	132.2	6		234.3	234.3	132.2
7		241.3	241.3	123.8	7		241.3	241.3	123.8
8		248.5	248.5	115.9	8		248.5	248.5	115.9
9		256.0	256.0	108.6	9		256.0	256.0	108.6
10		263.7	263.7	101.7	10		263.7	263.7	101.7
현재가치	309.0	2114.4	1805.4	926.4	현재가치	287.4	2114.4	1827.0	946.0
수익률				70%	수익률				73%

6. 시뮬레이션 IV

(1) 비용

위의 시뮬레이션 II, III 과 같다.

(2) 수익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조달시장의 규모를 개발은행의 차관액만으로 추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조달시장의 규모를 차관액에 한정하지 않고, 협력차관, 무상원조, 차입국의 투자까지 합하여 그 규모를 추정한다. 따라서 초년의 조달시장규모는 약 161 억 달러이다. 위의 시뮬레이션에서와 같이, 이 시장규모는 실질가치로 매년 3%씩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익도 매년 3%씩 증가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가정으로 보면, 한국은 초년에 중남미 조달시장에서 4억 2,700 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게 된다. 이 금액은 2000년 한국의 대중남미 총 수출액의 4.7%에 해당하며, 가장 큰 중남미 수출대상국(멕시코)

시코)에 대한 수출액의 1/6 에 해당한다. 또한 칠레에 대한 수출액의 2/3 에 이르고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 총액과도 비슷한 금액이며, 베네주엘라나 페루 혹은 콜롬비아에 대한 수출액을 훨씬 초과한다.

한국의 경우, 매년의 수익의 현재가치의 누계에서 초기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누계의 현재가치는, 초기비용을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벤치마킹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순수익 누계의 현재가치는 최고 24 억 7,000 만 달러이며, 최저 21 억 9,800 만 달러에 이른다. 수익율도 연평균 최고 9,700%에서 최저 141%에 달한다 (표 11).

7. 시뮬레이션 V

(1) 비용

위의 시뮬레이션 II, III, IV 와 기본적으로 같다.

(2) 수익

위의 시뮬레이션 IV 와 기본적으로 같되, 조달시장의 규모가 사실상 50%로 줄어든다고 가정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역외국가는 미주개발은행의 조달시장에서 50%만 참여하였기 때문에 각 역외국가의 수익은 사실상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남미 조달시장에서 2 억 1,300 만원의 외화를 획득하게 된다. 이 금액은 시뮬레이션 III 에서의 수익 (2 억 8 백만 달러)과 비슷하다. 즉 한국의 2000 년 대 중남미 수출총액의 2.3%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순수익 누계의 현재가치나 순수익율도 시뮬레이션 III 과 대동소이하다. (표 12).

<표 11> 미주개발은행 조달사업 시물레이션 IV

슬로베니아(US\$백만)					포르투갈(US\$백만)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1	4.4	0	-4.4	-4.0	1	9.3	0	-9.3	-8.5
2		426.65	426.65	352.6	2		426.65	426.65	352.6
3		439.4	439.4	330.2	3		439.4	439.4	330.2
4		452.6	452.6	309.2	4		452.6	452.6	309.2
5		466.2	466.2	289.5	5		466.2	466.2	289.5
6		480.2	480.2	271.1	6		480.2	480.2	271.1
7		494.6	494.6	253.8	7		494.6	494.6	253.8
8		509.4	509.4	237.7	8		509.4	509.4	237.7
9		524.7	524.7	222.5	9		524.7	524.7	222.5
10		540.5	540.5	208.4	10		540.5	540.5	208.4
현재가치	4.4	4334.4	4330.0	2470.8	현재가치	9.3	4334.4	4325.1	2466.4
수익률				9700%	수익률				4591%

독일(US\$백만)					프랑스(US\$백만)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1	309.0	0	-309	-280.9	1	287.4	0	-278.4	-253.1
2		426.65	426.65	352.6	2		426.7	426.65	352.6
3		439.4	439.4	330.2	3		439.4	439.4	330.2
4		452.6	452.6	309.2	4		452.6	452.6	309.2
5		466.2	466.2	289.5	5		466.2	466.2	289.5
6		480.2	480.2	271.1	6		480.2	480.2	271.1
7		494.6	494.6	253.8	7		494.6	494.6	253.8
8		509.4	509.4	237.7	8		509.4	509.4	237.7
9		524.7	524.7	222.5	9		524.7	524.7	222.5
10		540.5	540.5	208.4	10		540.5	540.5	208.4
현재가치	309.0	4334.4	4025.4	2193.9	현재가치	287.4	4334.4	4056.0	2221.7
수익률				141%	수익률				156%

<표 12> 미주개발은행 조달사업 시물레이션 V

슬로베니아 (US\$백만)					포르투갈 (US\$백만)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1	4.4	0	-4.4	-4.0	1	9.3	0	-9.3	-8.5
2		213.3	213.3	176.3	2		213.3	213.3	176.3
3		219.7	219.7	165.1	3		219.7	219.7	165.1
4		226.3	226.3	154.6	4		226.3	226.3	154.6
5		233.1	233.1	144.7	5		233.1	233.1	144.7
6		240.1	240.1	135.5	6		240.1	240.1	135.5
7		247.3	247.3	126.9	7		247.3	247.3	126.9
8		254.7	254.7	118.8	8		254.7	254.7	118.8
9		262.4	262.4	111.3	9		262.4	262.4	111.3
10		270.2	270.2	104.2	10		270.2	270.2	104.2
현재가치	4.4	2167.2	2162.8	1233.4	현재가치	9.3	2167.2	2157.9	1229.0
IRR				4851%	IRR				2297%

독일 (US\$백만)					프랑스 (US\$백만)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연도	비용	이익	순이익	순이익의 현재가치
1	309.0	0	-309	-280.9	1	287.4	0	-287.4	-261.3
2		213.3	213.3	176.3	2		213.3	213.3	176.3
3		219.7	219.7	165.1	3		219.7	219.7	165.1
4		226.3	226.3	154.6	4		226.3	226.3	154.6
5		233.1	233.1	144.7	5		233.1	233.1	144.7
6		240.1	240.1	135.5	6		240.1	240.1	135.5
7		247.3	247.3	126.9	7		247.3	247.3	126.9
8		254.7	254.7	118.8	8		254.7	254.7	118.8
9		262.4	262.4	111.3	9		262.4	262.4	111.3
10		270.2	270.2	104.2	10		270.2	270.2	104.2
현재가치	309.0	2167.2	1858.2	966.5	현재가치	287.4	2167.2	1879.8	976.1
IRR				71%	IRR				77%

8. 시물레이션 요약

위의 시물레이션은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한다고 해도, 결코 잃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조달사업을 통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수익율은 초기의 투자비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위에서 본 어떤 경우에도 최저 연 평균 37% 이상을 보장할 수 있다.

조달사업의 참여 정도는 납입자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슬로베니아와 마찬가지로 낮은 비율의 자본을 납입하면서도 자본금 지분율이 높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조달시장 참여로 높은 수익율(최대예상 9,700%)을 누릴 수 있다.

VI.

본 연구는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도, 특히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하여 그 차관에 관련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이익이 되면 얼마나 되는지를 가입비용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의 조달시장에 참여하면, 장기간의 경제적 이익이 개발은행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초기의 투자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비용-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슬로베니아와 유사한 수준의 일반자본금 지분(0.03%)과 특별운영기금 지분(0.03%)을 확보하는 경우, 약 420 만 달러라는 초기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순이익의 현재가치가, 많게는 24 억 7 천만 달러에 달하게 되며, 적어도 8 천 5 백만 달러에 달하게 된다. 연평균 수익율도 최고 9,700%에 달하며, 적어도 353%를 초과한다. 또 다른 예로, 포르투갈 만큼의 일반자본금 비율(0.05%)과 특별운영기금 지분율(0.07%) 확보한다면, 930 만 달러의 초기 투자비용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순수익의 현재가치는 많게는 24 억 6 천만 달러, 적게는 3 천 7 백만 달러에 달한다. 연평균 수익율도 최고 4,590%에 달하며, 최저 87%를 초과한다.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한다면, 차관에 관련된 조달시장에 참여하여 얻는 위와 같은 직접적 효과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해외투자자와 무역의 증대 등 경제적 이익, 중남미 시장 일반에 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외교관계 및 국제관계의 확대와 증진 등의 광범위한 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05년의 FTAA 창설을 계기로 하여 중남미 시장은 확대개편될 전망이다. 한국 등 역외국은 차별관세와 부수적인 차별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위협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FTAA가 본 궤도에 올라서기 전에 한국은 중남미국가와의 경제 교류를 강화하고 가속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의 차관에 관련된 조달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한국이 조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다음 문제는 한국이 어떻게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회원국으로 단시일에 가입하는가 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의 고위 정책결정권자는 미주개발은행에의 가입을 한국의 중요한 경제외교정책의 하나로 삼도록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내외에 천명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효과도 있고, 한국정부의 결심을 미주개발은행 및 그 회원국에 알려서 그들의 협조를 구하는 효과도 있다. 또 한국의 미주개발은행 가입을 한미 경제장관회의와 외무장관회의의 정식의제로 상정하여 새 회원 국가입에 중요한 투표권과 사실상의 거부권을 가진 대주주인 미국의 양해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한미간의 현안문제(예: 북한의 핵 문제, 한국의 대 국제테러전쟁 참여)가 한국의 이해에만 관련되어 있지 않고 국제적인 이해와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의제와 동시에 논의함으로써 미국정부의 지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회원국이 되기 위한 조직적인 정책조정을 도모하고 필요한 로비활동과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전담반(task force)을 구성한다. 이는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한국이사, 그리고 중남미 국가의 대사관 대표 직원들로 구성된다. 이들의 역할은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로비 활동을 펼쳐서 미주개발은행의 안과 밖에서 회원국 정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한국의 가입 노력이 활성화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처와 정부 기관 간에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가입 노력을 단일화 시키고 전략도 일관성을 띠게 될 것이다.

셋째,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하려는 목적이 중남미 조달시장에 참여하여 경제적, 직접적 효과를 노리는 데에 있다는 인상을 주지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한국은 넓은 의미에서 중남미 국가와 긴밀한 경제외교관계를 구축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며, OECD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리더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 미주개발은행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심어야 한다. 최근에 타결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한국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중남미 국가는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일종의 위협을 느끼고, 한국이 미주개발은행에 가입하면 기존의 조달시장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중남미 대국의 기득권을 크게 교란시킬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미 설치된 한국신탁기금(Korean Trust Fund)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개발은행 내에서 한국의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이미지와 입지를 다지는 것이다. 또 다른 예는 중남미 국가, 특히 브라질, 칠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신흥산업화국가들이 아시아개발은행의 가입에도 관심이 있으므로, 상호 교차가입을 도모하는 협의를 하는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the membership of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in

1979,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Korean government's endeavor. To make the matters worse,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stalled government's efforts to make accession to the IDB. The public opinion was critical of the government's decision to join the OECD prematurely in 1995, which was considered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financial plague. The drastic fiscal austerity measures adopted by the government discouraged any attempts to take on an obligation to subscribe to an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apital. Moreover, some government officials as well as the people in general were in doubt about the economic benefits of Korea's accession to the IDB.

Now that the Korean economy miraculously recovered from the damaging effects of the crisis and joined the globalization of the economy actively by further liberalizing international trade and overseas investment, the government has naturally refocused on the Latin American markets. Moreover, in early 2001 the announcement that negotiations for the Free Trade Agreement of the Americas (FTAA) would be concluded by 2005 created consternation in many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for which the Americas has provided important markets. The FTAA will form the largest free trade area in the world by including 34 countries in Western Hemisphere with 800 million people and \$12 trillion incomes. Before the free trade agreement become effective, the Korean economy needs to establish a sound footing on the Americas, so that it can weather any negative effect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expand its economic relations with Latin America.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review its past efforts to join the IDB and formulate a new strategy to use its membership with the IDB for its stepped up economic cooperation with Latin America.

In this context, the current paper analyzes the potential economic costs and benefits that will come with Korea's accession to the IDB, with a special emphasis on the Korean enterprises' participation in the procurement markets related to IDB's project loans. This paper carries out

five simulation exercises, using various assumptions on the economic costs and benefits. Subscribed capital and paid-in capital are considered major costs, and the awards of contracts, which will be financed partly by IDB's project loans, to Korean enterprises as major benefits. The costs and benefits are approximated, on the one hand, at the level of Germany and France, each of which subscribes the largest share of the IDB capital among non-regional members, and, on the other hand, at the level of Portugal and Slovenia, each of which subscribes the smallest share. The benefits are also estimated at the same proportion as Korean enterprises have been sustaining in the procurement markets related to the projects loans and credits of the World Bank among all its members.

The conclusion of the analysis is that there is no basis to question the profitability of Korea's accession to the IDB. In no cases the 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 to Korea's investment in the IDB is lower than 37%, and net present value of Korea's joining the IDB is at least 1.2 times the initial costs over a period of next ten years. These results exceed the normally accepted investment criteria adopted by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such as the World Bank and IDB.

In addition to the direct economic benefits mentioned above, Korea's accession to the IDB will yield important indirect benefit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markets in Latin America, acquisit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useful to the Korean economy and Korean enterprises' marketing efforts in Latin America, and strengthening of Korea's international economic and diplomatic relations with countries in Latin America.

Key Words: Latin America, Korea, IDB, economic costs and benefits, accession, multilateral banks, procurement / 중남미, 한국, 미주개발은행, 비용-효과 분석, 회원가입, 국제개발은행, 구매 조달

논문투고일자: 2003. 4. 15

게재확정일자: 2003. 5. 17

김준혁(2002), 「미주개발은행 가입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중남미 포럼 발표논문집: 1998-1999. 한·중남미협회, pp. 223-234.

이계우(1999), 「미주개발은행 가입 시급」, 조선일보 3월 13일자 논단 6면.

Asian Development Bank(2002), *Annual Report 2001*.

Asian Development Bank(1997), *Guidelines for the Economic Analysis of Projects*.

Bakker, A.F.P.(1996),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2002), *Annual Report 2001*.

International Monetary Fund(2002), *Direction of Trade 2001*.

World Bank(2002), *Annual Report 2001*.